‘한승혁 3승+12점 폭발’ KIA, NC 꺾고 위닝시리즈

선발 한승혁, 6⅔이닝 4피안타 2볼넷 3탈삼진 1실점 역투

안치홍·최형우·김주찬 클린업 트리오 9안타 4타점 합작

KIA가 최하위 NC에 위닝시리즈를 거뒀다.

KIA 타이거즈는 27일 창원마산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원정경기서 12-1로 이겼다. 원정 3연전을 2승1패로 마감, 26승25패가 됐다. NC는 19승34패로 최하위.

한승혁이 6⅔이닝 1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키는 사이 타선이 살아났다. 특히 3번 안치홍부터 6번 이범호까지 중심 타자들이 펄펄 날았다. 안치홍은 시즌 10호, 최형우는 시즌 8호 홈런을 터트렸다.

1회 삼자범퇴로 물러났던 KIA가 2회 중심 타자들의 연속 안타로 기회를 잡았다. 4번 타자 최형우에 이어 5번 타자 김주찬까지 중전 안타로 출루해 무사 1, 3루 기회를 얻었다.

선취점은 나지완이 냈다. 이범호가 삼진으로 물러난 뒤 나지완이 우익수 희생플라이를 기록했다. 2사 2루에서는 한승택이 좌전 적시타를 뽑아 2-0을 만들었다.

3회에도 중심 타선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추가점을 얻었다. 이명기의 중전 안타 뒤 1사 1루에서 안치홍이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쳤다. 최형우와 김주친이 연속 적시타를 날려 KIA가 4-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5회에는 최형우가 시즌 8호 홈런을 터트렸다. 2사 주자 없는 상황 볼카운트 3-0에서 4구를 제대로 받아쳤다. 최형우의 올해 첫 볼카운트 3-0 타격이었다. 구창모의 141km 직구는 125m를 날아가 우중간 관중석에 떨어졌다.

5-0으로 앞선 7회에는 안치홍이 솔로 홈런으로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채웠다. KIA는 7회 이범호의 1타점 2루타, 8회 이명기의 땅볼 타점과 김선빈의 적시타 등으로 계속 달아났다. 9회에는 박준태가 데뷔 첫 홈런을 날렸다.

KIA는 선발 한승혁이 6⅔이닝 동안 4피안타 2볼넷 1사구 3탈삼진 1실점 역투를 펼치면서 시즌 3승을 수확했다. 타선에서는 안치홍과 최형우, 김주찬의 클린업 트리오가 9안타 4타점을 합작하면서 공격 선봉에 섰다. 17안타 3홈런 12득점의 맹폭이었다.

NC는 선발 구창모가 5이닝 5실점을 기록하고 강판되면서 패전의 멍에를 섰고 타선은 4안타 1점의 빈공에 그치며 루징시리즈를 면하지 못했다.

국내 배드민턴 최강자 강진서 가린다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8일간…전국 48개팀 700여명 참여

강진군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제61회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대학 및 일반부 경기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 8일간 열린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배드민턴협회와 강진군 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48개 팀에서 선수, 임원 및 관계자 등 700여명이 대거 참여해 남녀 각 개인 및 단체전을 통해 서틀콕 최강자를 가린다.

이번 대회에는 남자일반부 10팀과 여자일반부 10팀, 남자대학부 15팀과 여자대학부 13팀 포함 총 48개 팀이 참가하여 3단 2복식의 단체전을 비롯해 개인전 단식, 개인전 복식, 혼합복식 경기가 펼쳐진다.

특히 14년만에 우승한 제15회 세계혼합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의 주역인 손완호, 성지현 등 국가대표 전원이 출전하며, 2017년도 최우수 선수 장예나, 이소희 선수 등 실업 선수와 대학팀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배드민턴 대회다.

강진군은 주경기장인 강진 제2실내체육관과 연습경기장인 강진 제1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의 선수단과 관람객이 7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회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 국내 최정상급 배드민턴 선수들이 멋진 기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강진국민체육센터에서 제 60회 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를 펼치고 있다.

한편, 2019년까지 3년간 강진, 영암, 장흥 3개 군 공동으로 개최되는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상생나무 행복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개최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강진=김영일 기자

재계약? 이적? 호날두 “며칠 내로 밝힐 것”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 또 한 번의 빅 이어(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선사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결승전 직후 깜짝 발언을 예고해 축구팬들을 놀라게 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27일 오전 3시 45분(한국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NSK 올림피스키에서 열린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리버풀(잉글랜드)을 3-1로 제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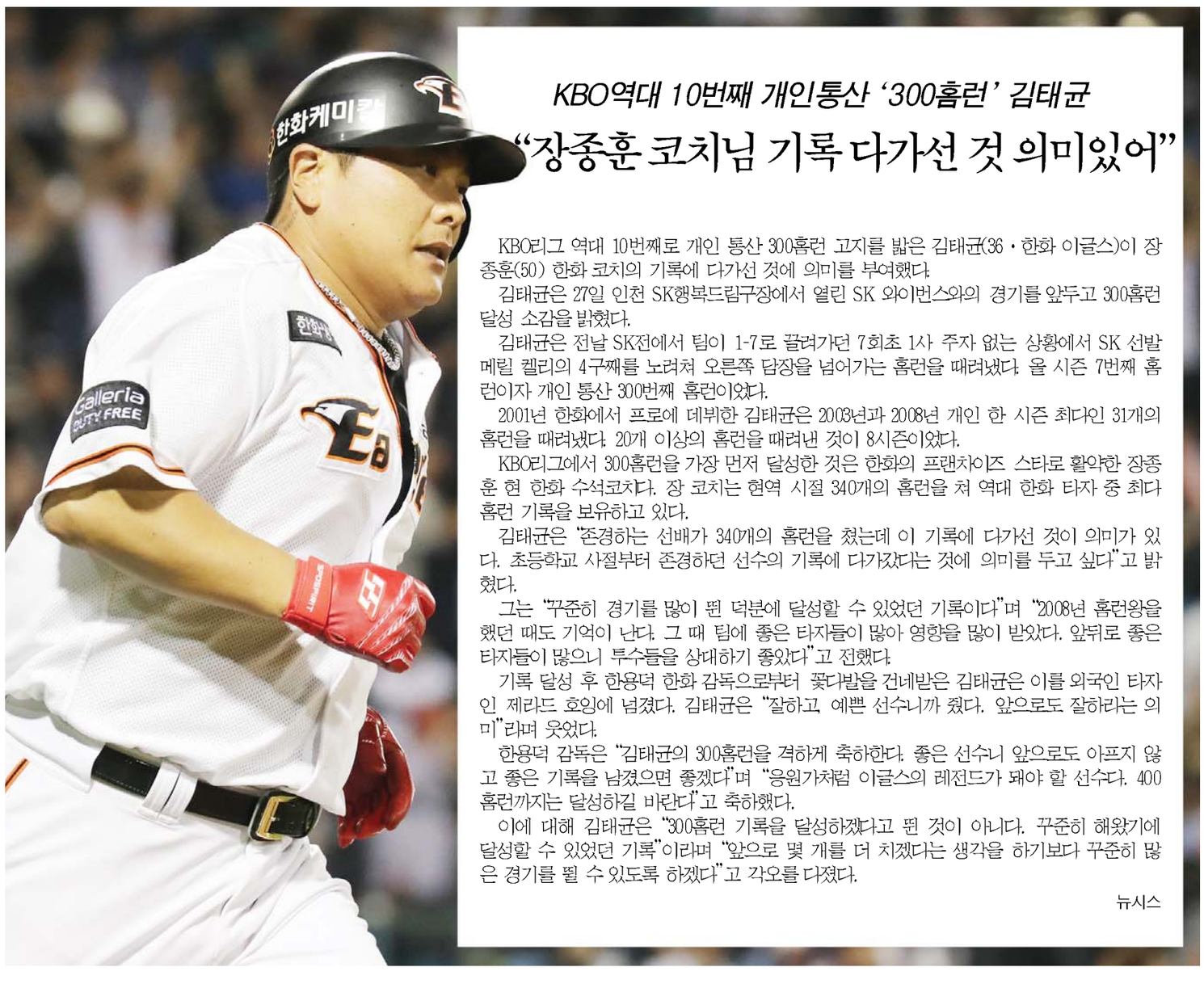
호날두의 5번째 '빅 이어'(챔스리그 우승 트로피) 정복기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1회 우승을 경험한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 4차례 우승을 맛봤다. 현재 챔피언스리그 체제로 개편 후 최다 우승자로 기록됐다. 15골로 6시즌 연속 득점왕이라는 금자탑도 쌓았다.

어김없이 선발 공격수로 나선 호날두는 90분을 모두 소화했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지만 날카로운 돌파로 그라운드 곳곳에서 존재감을 뽐냈다.

우승 세레머니를 마친 호날두는 스페인 베인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있었던 것은 무척 좋은 일이었다”고 말했다. 현 소속팀에서의 생활을 과거로 표현해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답변이었다. 이어진 질문에 호날두는 “며칠 내로 늘 내 편이었던 팬들에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TV 방송인 안테나3와의 인터뷰에서도 즉답을 피했다. “(우승을 차지한) 당장 선수들의 미래는 중요하지 않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장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될 것” 등의 말을 남겼다.

교체 투입 2분 만에 형언하기 어려운 환상적인 골로 팀에 트로피를 안긴 가레스 베일은 보다 확실한 어조로 이적 가능성을 열어뒀다. 베일은 “나는 매주 뛰고 싶은데 올 시즌에는 잘 안 됐다”면서 “올 여름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KBO역대 10번째 개인통산 ‘300홈런’ 김태균

“장종훈 코치님 기록 다가선 것 의미있어”

KBO리그 역대 10번째로 개인 통산 300홈런 고지를 밟은 김태균(36·한화 이글스)이 장종훈(50) 한화 코치의 기록에 다가선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태균은 27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300홈런 달성 소감을 밝혔다.

김태균은 전날 SK전에서 팀이 1-7로 끌려가던 7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SK 선발 메릴 켈리의 4구째를 노려쳐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을 때려냈다. 올 시즌 7번째 홈런이자 개인 통산 300번째 홈런이었다.

2001년 한화에서 프로에 데뷔한 김태균은 2003년과 2008년 개인 한 시즌 최다인 31개의 홈런을 때려냈다. 20개 이상의 홈런을 때려낸 것이 8시즌이었다.

KBO리그에서 300홈런을 가장 먼저 달성한 것은 한화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활약한 장종훈 현 한화 수석코치다. 장 코치는 현역 시절 340개의 홈런을 쳐 역대 한화 타자 중 최다 홈런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김태균은 “존경하는 선배가 340개의 홈런을 쳤는데 이 기록에 다가선 것이 의미가 있다. 초등학교 사절부터 존경하던 선수의 기록에 다가갔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꾸준히 경기를 많이 뛴 덕분에 달성할 수 있었던 기록이다”며 “2008년 홈런왕을 했던 때도 기억이 난다. 그 때 팀에 좋은 타자들이 많아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앞뒤로 좋은 타자들이 많으니 투수들을 상대하기 좋았다”고 전했다.

기록 달성 후 한용덕 한화 감독으로부터 꽃다발을 건네받은 김태균은 이를 외국인 타자인 제라드 호잉에 넘겼다. 김태균은 “잘하고, 예쁜 선수니까 줬다. 앞으로도 잘하라는 의미”라며 웃었다.

한용덕 감독은 “김태균의 300홈런을 격하게 축하한다. 좋은 선수니 앞으로도 아프지 않고 좋은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며 “응원가처럼 이글스의 레전드가 돼야 할 선수다. 400홈런까지는 달성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에 대해 김태균은 “300홈런 기록을 달성하겠다고 뛴 것이 아니다. 꾸준히 해왔기에 달성할 수 있었던 기록”이라며 “앞으로 몇 개를 더 치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꾸준히 많은 경기를 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뉴시스

“모두 내 책임” 리버풀 GK 카리우스, 눈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믿기 어려운 실수를 범한 리버풀(잉글랜드) 골키퍼 로리스 카리우스는 “나 때문에 졌다. 모두 내 책임”이라면서 끝없이 자책했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리버풀은 27일(한국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NSK 올림피스키에서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치렀다.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다니엘 카르바할(스페인)이 부상으로 떠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전반은 득점 없이 막을 내렸다.

후반 6분 레알 마드리드가 균형을 무너뜨렸다. 원인 제공자는 카리우스였다. 카림 벤제마에 앞서 여유있게 공을 잡은 카리우스는 근처에 있던 동료에게 손으로 패스를 연결했다. 그 순간 카리우스 옆에 있던 벤제마가 오른발을 쭉 뻗었다. 공교롭게도 카리우스의 손을 떠난 공은 벤제마의 발에 맞고 리버풀 골문으로 향했다.

카리우스의 악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2로 끌려가던 후반 38분 베일의 왼발 중거리 슛을 쳐내려다 흘리면서 또 다시 실점을 헌납했다. 동점골을 위해 사력을 다하던 리버풀 선수들 중 일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 카리우스는 그라운드에 얼굴을 댄 채 한참을 울었다. 리버풀 동료들은 물론 베일까지 다가가 위로를 건넸지만 진정이 될 리 없었다.